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무首相의 演說 —羅馬進軍十五周年祭席上—

一

팟시스트의『羅馬進軍』이 벌서 十五周年을 마지하게되엿다。그리하야 뭇솔리니首相은 再昨廿八日 팟시스트黨 羅馬進軍十五周年記念日에 際하야『뭇솔리니 스테디온』에서 大衆의 팟시스트代表黨員과 數萬의 群衆을 向하야 팟시스트黨의 歷史的業績을 自畫自讚하는 一大演說을 試하엿다。그는말하기를『팟시스트革命은 아직 할일이 만흐나 伊太利國民은 어데 成就한業績을 자랑하여도조타』하엿다。事實 팟시스트得勢以前의 伊太利와 今日의 伊太利를 比較할때에 國民各個人의福祉如何는 問題된다할지라도 伊太利의 領土的擴張 國際的地位로본다면 무首相으로 큰소리를 칠만치되엿다。

팟시스트黨의 發源은 大戰後伊太利의困窮에 基因한다。世界大戰의 뒤를니어 伊太利에 未曾有의 大恐慌이 襲來하자 社會主義運動이 熾烈化하야 政治的大混亂을 示現하게되엿든바 이運動의 內部에서 그世界性을 否定하는 國粹黨으로서의 팟시스트는 뭇솔리니 指導下에 一九一九年 밀라노城에서 結黨하고 一九二二年 十月二十八日 팟시스트의『羅馬進軍』으로 패러內閣을 倒壞하고 伊太利政權을 掌握하게되엿다。

二

팟시즘의 國家觀念은 普遍主義的 全體性을 前提로出發한다。自由主義的 國家觀念의 本質은 個人主義的이라하야 此를 排擊하고 自由의 代身으로 權威로써 國家秩序의 原理를 삼으려한다。팟시스트는 社會主義도 自由主義의 一種으로 斷定하고 이것을 排斥한다。即 社會主義는 自由主義와가티는 個人을 重視치안는다하드래도 一國內에서 階級이라는 團體를 標準으로 經濟的乃至 倫理的 實現中에서 國家를 統一하려는것이라하야 非難한다。또 社會主義는 唯物史觀의 見地에서 經濟를 重視하고 人間을 歷史的人形取扱을한다고 非難하는反面에 팟시즘은 人間의幸福을 物質的그것보다도 一步進하야 人格的形成力中에서 求한다고한다。同一한表現은 伊太利 勞働憲章中에서도 發見할수잇다。即『伊太利國民은 個人 또는集團的으로 結合한 個人그보다 훨신有力하며 또 繼續的인 獨自의目的、生活及作用의 手段을가진 有機體이다。이것은 팟시스트國家에 完全히實現되는 政治的및 經濟的統一이다』라고 規程되여잇다。따라서 팟시스트國家에 엿서서는『個人은目的이오 目的에의 手段으로는생각할수업다』는 칸트의 思想은 全然 拒否되는것이다。

三

팟시즘은 伊太利固有의 傳統과 特殊性을 强調하는 國粹主義그속에서 生長한것이니만치 國家有機體說을 力說하는 同時에 民族有機體說을 主張한다。그러나 라틴民族對 게르만民族의 對立을 强調하는것이 아니라 가튼 라틴民族中에도 佛蘭西民族과 伊太利民族을 區別하야 伊太利民族의 優越性을 主張한다。무首相의 二十八日 演說中에『過去 十五年間의 팟시스트의 業績을 要約하면 古代羅馬를 一國 近代羅馬에 옴기게 한것이다』라고 說明한것도 그本意가 여게잇는것이며 뭇조가『古代國家과 羅馬帝國의 傳統을 進繫하는者는 가톨릭敎會와 팟시스트國家哲學이다』라고 說破한것도 伊太利民族의 優秀性과 排外的思想의 根本意識에 基因하는 것이다。[illegible] 伊太利의 對外關係에잇서 英米佛을 資本主義者로 認定하고 伊太利는 [illegible] 自覺하게하엿다。그리하야 [illegible] 지못하나라』가『가진나라』에 對한 抗爭은 必然的現象이라하야 이것을 [illegible]

[illegible] 相이『今日 伊太利國民은 [illegible] 되고 [illegible] 를 [illegible] 이러서라고 [illegible] 잇다』는말도 이러한 [illegible] 팟시스트 [illegible] 表現으로볼수잇는 것이다。

四

팟시스트의 主義에는 [illegible] 안흔 不明한 [illegible] 이 만코 따라서 [illegible] 多分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三 [illegible] 팟시스트政權이 樹立되고 [illegible]

[illegible] 이리하야 팟시즘은 [illegible] 世界的으로 [illegible] 社會主義가 어떠케 [illegible] 어갈가는 [illegible] 注目케한다。

安達部隊 謝家宅奪取!
小林鯉登兩部隊陽泉占據
海軍航空隊渡洋部隊○○機 蘇州河南岸徹底히破壞

【新宅三十日發同盟】南翔을 向하야 猛進을 繼續하고잇는 安達部隊는 三十日 午前七時曇天의 曠野를 細見戰車隊의 掩護下에 猛烈한 進擊을 開始하야 同十時半謝家宅을 奪取하고 다시 馬路灣方面으로 敗敵을 追擊中이다

【石家莊三十日發同盟至急報】娘子關의 險을 突破한 以來敵을 急追하면서 西進中인 小林鯉登兩部隊는 三十日 午前十時 正太線上의 要地陽泉을 占據하엿다 敵은 벌서 戰鬪를 交할 餘裕도업시 다못 敗走하고 잇다 이에 對하야 我騎兵部隊는 駿足을 利用하야 猛烈히 追擊中인데 이 陽泉附近으로부터 山岳地帶와 나노여 畢竟太原平地에 나서게되는까닭에 我軍은 太原을 目標로 意氣衝天하다

【上海三十日發同盟】今日午後二時半頃 海軍航空隊渡洋部隊○○機는 海軍最前線上空에 雄姿를 나래내여 蘇州河南岸의 敵陣地에 巨彈을 퍼부어 敵陣地를 徹底的으로 破壞하엿다

【上海三十日發同盟】今日陸軍飛行主力部隊는 地上部隊의 猛進과 呼應하야 蘇丹河南側의 敵陣地에 一大爆擊을 加하엿다

步兵砲兵이呼應하야 忻口鎭附近의敵攻擊開始

【北京三十日發同盟】忻口鎭北方高地를占領하고 敵과對峙中이든 我軍은三十日早朝來 步、砲兵部隊의緊密한 協力下에 總攻擊을 開始하엿다 彼我의砲聲은 처운 山間에 殷殷히들리고잇다

寒風을무릅쓰고猛擊

【北京三十日發同盟】娘子關의難關을 突破하고 山西省內에 進擊한 我○○部隊는 아직도 重疊한 天險과 寒氣와싸호면서 猛進을 繼續하고엿는데 娘子關을 中心으로 附近一帶의 部落은 韻落이란 部落은 食料品은 勿論 豚鷄等의 家畜家禽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携帶逃亡한까닭에 文字그대로 고양이새끼한마리도업는 狀態이다 그우에 同地方의 道路는 石疊의 部分이만코 더욱이것이 거의破壞된까닭에 砲車輜重隊의 輸送에 皇軍으로서는 想像以上의 困難에 빠저잇다 그러나 我將兵은 어떤困難을 갈참고 兵馬飢寒그他모든辛酸을 맛보며 猛擊을 繼續하고잇다

太原을目前에두고 我將兵의意氣旺盛

【平地泉三十日發同盟】忻口鎭南口平刑關의 激戰에서 巧妙히突破하고 山西高原을 破竹의 勢로 行進을 繼續하는 我○○部隊는 마침내 敵의最後로 헐넘는忻口鎭東西의 高地에 堅固한 陣地를敷設하는 山西軍에 對하야 果敢한 攻擊을 加하고엿는데 天險의地形에 [illegible] 堅壘에 據하야잇는敵은 頑强한 抵抗을 試하야 彼我의砲聲은 朔風에 [illegible] 이울리고 彼方此方 [illegible] 는人馬聲은 一層 [illegible] 다半酸을 겪그면서 血汗에 [illegible] 我將兵들은 아직도 [illegible] 은채로 五台山에서 [illegible] 오는寒風이 [illegible] 하지안코 爭奪戰을 繼續하는 [illegible] 업다바야흐로 忻口鎭의 陷落은 時間問題로 太原을 目前에 두고我將兵의 意氣는 益益旺盛하다

支那機 蘇聯系映畵館爆擊

【東京電話同盟】支那飛行機의盲爆은 어미定評이엿는바인데 二十八日夜의 空襲에서 上海北四川路에잇는 蘇聯系映畵劇場에 有名한 아이시스劇場에 爆彈을 投下하얏다는바 三十日陸軍省에 入電이잇섯다

上海戰線 上海日日에서본 閘北陣地의 大火災

陸軍機掩護下에 津浦線寧晋占領
山東軍卅九師의本據도爆擊
太原空襲엔敵九機埋葬

【德州三十日發同盟】津浦線東側地區一帶의敵을 南方으로도하야 追擊中인 我部隊는 三十日早朝鳳凰을 出發하야 寧晋上空에 나타나 마침同地를 攻擊中인 地上部隊와 協力하야 友軍의 同地占領을 援助하고 다시同地의 山東軍二十師의 本據를爆擊하야 大損害를주엇다

【○○根據地에서三十日發同盟】○○機의 我空軍은 三十日 午前七時五十分 ○○根據地를 出動하야 太原을 空襲하자 突然太原上空에서 敵機四機와 遭遇하야 即時이를 追擊하야 山川少尉의 ○○機는 猛進하야 敵과 空中戰을 演하야 드듸어敵機一機를 擊墜하엿다 다시我編隊는 太原을 襲하야 太原飛行場을 爆擊하야 마침地上에서 待機中인敵機中型一機、小型五機에 爆彈을 投下하야 이를 粉碎하고 凱歌를 노피부르며 ○○根據地에 歸還하엿다 어가리 同編隊는 急降下도엇시 同十時五十分 다시太原을 空襲하야 地上으로부터 射出하는 敵의 對空射擊을 무릅쓰고 果敢한 爆擊을 行하고 待機中인 敵의中型二機를 爆破하야 今朝부터 合計九機를 完全히 埋葬하엿다

蘇供給重爆機 九機이미到着

【上海三十日發同盟】確聞에依하면 蘇聯에서 供給하는重爆擊機九臺는漢口로부터 空輸되는바이며數日前에輸送完了된것이判明되엿다 또支那人파이롯트三十數名은 第二回空輸分을 受取하기爲하야新疆에赴하엿다한다

反革命五十二名에 死刑宣告

【莫斯科二十九日發同盟】AP通信社莫斯科支局에서 二十九日入手한蘇聯各地方新聞情報에 依하면 五十二名의 反革命分子가 家畜殺戮及集團農場妨害等으로 死刑의宣告를 바덧다한다

桑港南京間 空輸新記錄

【紐育二十九日發同盟】南京發AP通信에 依하면 破傷風防毒藥三千箱 그他醫藥五百箱이 二十九日南京의 米國大使館에 到着하야 大使館當局은 이를 赤十字班에 配給하엿는데 右醫藥品은 去二十日 桑港에서 차이나크릿퍼機에 실어어 香港을 經由한것인데 由한것인데 桑港南京間의 輸送日數九日의 新記錄을지엿다

奪取한植民地를 獨逸에返還하라
에프將軍一大獅子吼

【伯林二十九日發同盟】植民地返還論者의 急先鋒으로 有名한獨逸植民協會長에프將軍은二十九日로메市에서國際法에 基하야 獨逸植民地返還要求의 大演說을行하야 植民地要求의 合法性을 强調하야 一大獅子吼를試하엿다 뭇솔리니首相이 二十八日羅馬에서 獨逸의 植民地要求를 支持하는旨를 公然히 聲明한事實에 비치워 에프將軍의植民地返還要求는 羅馬、伯林樞軸을 一層强化하는것으로 注目되고잇다 演說內容은 左와如하다

獨逸의 經濟問題에서 植民地問題를 除去함은 不可能하다 獨逸이 現在食料品及原料品의 獲得에 苦鬪를 繼續하고잇슴은 聯盟各國이 獨逸에서 植民地를 奪去한 結果에 不外하다 獨逸國民은 過去二十年間에 베르사이유條約의 桎梏에서 脫却하려고 一步一步努力하야왓는데 現今은 植民地返還要求의 必要를 痛感하게되엿다 어느意味에서는 獨逸國民의 權利이여서 [illegible] 어야말로 [illegible] 에依하야 解決될것이아니다 獨逸의 要求는 合法的인것이여서 決코無理한것을 생각지안홈은 안된다

百二十億元戰費
國民政府捻出을計畫中
外債五十億紙幣增發二十億內債其他五十億元
上海戰線頹勢挽回에奔忙

【東京電話同盟】三十日 某所着電情報에依하면 上海戰線에서 支那軍이退却한結果 南京政府를爲始하야 南支全般에 互해動搖가甚한데 特히上海支那側人氣는 急落狀態로 焦燥唐慌하야 民心의 動搖가 甚하므로 人氣回復에 狂奔하고잇는데 抗敵救援會는 支那民衆에告하는書를 布告하고『上海戰線의 後退는 豫定的退却으로 全面的戰線에 何等影響은업다』고 大宣傳을하고잇다 그리고 二十八日에는 上海를中心으로 文化救亡會、學生救亡會를新設하고 그合作으로 保衛大上海宣傳週間을計畫하고 在上海保衛工作特別委員會에서는 學生義勇軍의 結成을圖하는等 最後의 發惡을하고잇는데 一方南京政府程潛、楊杰、周恩來、葉劍英等首腦部가 長期抗戰을 目標로한 戰時豫算의 編成에對하야 重要協議를遂한 結果 總額百二十億圓의 戰費捻出方法으로 外債五十億元 紙幣增發二十億元 內債三十億元이란 計畫으로 그實現에 努力畫策中이라고傳하고잇스나 南京政府의 財政은 極度로逼迫하엿고 英國으로부터의 借款四億法은 이미 三分之二를 消費한狀態로 右戰時豫算의 實現은 자못疑問視된다

航空母艦『飛龍』 來月十六日進水式

【橫須賀電話同盟】橫須賀工廠에서 建造中인 飛龍이라고 命名된 航空母艦은 工事進陟되어來月十六日午後二時三十分進水式을 擧行하기로되엿다

綿絲綿花 最高標準價格決定

【大阪電話同盟】紡績聯合會及棉花同業會에서는 綿絲棉花의最高標準價格을 三十日左와如히發表하엿다

◆綿絲 金魚標二十番手一梱二百二十八圓 受渡月昭和十三年一月及二月 基準 經育定期十二月限大引八仙二二 一포인트變動마다一梱에對하야 一圓五十錢

◆棉花 스트릭크트、밋드링八分ノ八吋 스테이플一피클五十一圓二十五錢 受渡月昭和十三年一月及二月 基準 經育定期十二月大引八仙二二 五포인트變動마다一피클에對하야 二十五錢

大豊紗廠의 敵百名을捕虜로

【上海三十日發同盟】大豊紗廠에 潛伏中의 敵百名은今早朝陸戰隊太田部隊에게 捕虜되엿다

【上海三十日發同盟】昨夜豊田紡에依據한敵은 同工場第二工場에 放火하고 逃亡하려하엿스나 敵十數名은 陸戰隊太田部隊에 捕虜되엿다 그리고同工場에 潛伏中의 敵數는 三百餘名으로觀測된다

本社參觀

◆五山高等普通學校生徒九十五名 金聖漢氏引率下本社見學
◆孝昌公立普通學校 姉母會員三十名本社參觀
◆全北金堤郡院坪公立普通學校生徒三十六名 李起遠氏引率下에 本社見學

人事·集會

◆李活氏 英國倫敦大學[illegible]

鳳凰店附近에서 韓復榘軍을大破
敵의遺棄死體六百餘

【天津卅日發同盟】津浦線의最左翼에서 鳳凰店을占領한 赤柴部隊는 黃河를 北上하야 徒駭河의 巨流를 넘고 抵抗하고잇는 敵을 掃蕩하고 잇섯는데 廿八日鳳凰店附近의 戰鬪에서 韓復榘의 廿九師八十五旅 八十七旅의 約二千 砲五門을 가진 敵과 激戰한 後 臨邑方面에 敗走케하엿다 敵의 遺棄死體는 六百餘名에 達하는데 그中將校도 七八名이잇서 黃河以北에잇는 敵의 掃蕩效果는 成果를엇고잇다

正太 忻口鎭方面 戰況

【北京三十日發同盟】軍司令部發表

一、正太方面小林、鯉登兩部隊는 協力하야 各處에 殘敵을 擊破하면서 今日午前十時 陽泉을占領하엿다 陽泉은 平定의 西方約四里의 地點에 잇는데 敵은 我急追擊에 唐慌하야 多數의 死體兵器를 遺棄하고 西方에潰走中

一、忻口鎭方面 栗飯原、萱島等各隊는 忻口鎭西北方高地에對하야 今曉부터 攻擊을 開始하엿다 또正午來 長野部隊는 忻口鎭東北方高地에 對하야力攻中이다

日本軍擊退命令
余漢謀厦門防衛司令에

【香港三十日發同盟】去二十六日 我海軍이 厦門港外金門島를 占領한以來 支那軍當局은 極度로狼狽 余漢謀는 厦門防衛司令黃濤에 對하야 日本軍을 擊退하라는 訓令을發하는同時에 目下潮州方面에 移駐한 蔣由어司令한 貴州軍二個師의 張發奎軍에 厦門救援을 命하야 交戰準備를 整頓하고 이미二十八日朝來厦門狐狸山砲臺其他附近의砲臺로부터 我軍艦에 對하야 發砲를開始하엿다 我海軍도 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 砲門을열고 一齊히 反擊을 加하는 同時에 二十九日午前十時 海軍機로 江東橋에 爆擊을 加하야 敵의軍事輸送을 阻止하고 엇스므로同方面의 空氣는 緊張의度를 加하게되엿다

蘇、會議參加回答

【莫斯科二十九日發同盟】蘇聯外務人民委員部는 二十九日 白耳義政府에 九個國條約國 會議參加의 回答을 發하엿다 同回答의正文은 次와如하다

蘇聯外務人民委員部는 十一月三日 開催의 브랏셀會議參加 招請에關한 十月二十八日附白耳義外交使節의 口上書를 正히受領하엿다 蘇聯은 華盛頓條約의 調印國은 아니엇스나 브랏셀會議가 十月六日의 聯盟總會의 決議에依하야 招集되여 또蘇聯政府도 極東問題에利害를 가지는者인 點을考慮에 너어 蘇聯外務人民委員部는 同會議參加의 準備가 잇는旨를 이에通告하는 光榮을 갓는것이다

南總督動靜

【十月三十日三陟에서】本社金達[illegible] 三陟[illegible] 午後三時[illegible] 昨年以來 [illegible] 을 建設하고잇는 石炭採出場인 [illegible] 과 工場建設로 有名한 北[illegible] 를 內[illegible] 三陟開發社長의 案內及 說明으로 또 [illegible] 하고 大[illegible] [illegible] 入하야 [illegible] 하엿다 明日은午後八時 出發하야 [illegible] 의三陟炭田等을 視察하고 [illegible] 에 [illegible] 하여 [illegible] 豫定이다

對英國交斷絕
國民運動開始及宣言可決

【東京電話同盟】山本悌二郎氏를 主宰者로한 時局懇談會는 三十日正午부터 日本工業俱樂部에서 開催하고 山本悌二郎、津田信吾、小川平吉、大竹貫一、健川美次、淸瀨一郎 그他貴衆兩院議員 學者實業家等百餘名이 出席하야 支那事變을 中心으로 여러가지意見을交換하엿는데 今番事變에際하야 英國의態度는 대단히遺憾된는點이만타하야 對英國交斷絕의 國民運動開始를決議하고 宣言을滿場一致로可決하고 同四時散會하엿다

條件如何론 和平交涉을應諾
在巴里某支那高官談

【巴里廿九日發同盟】日支紛爭解決에對하야 英米佛伊四個國의 調停案은 巴里政界方面에서 漸次有力化하고잇는데 巴里駐在某支那高官은 二十九日AP特派員에對하야『支那는 브랏셀會議에서 和平交涉에 應할準備가잇다』는 旨를漏洩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支那는 브랏셀會議에서 日本과의和平交涉에 應할準備가잇다 그러나如何한犧牲을 내여도和平을 願한다는 意味는아니다 日本側의 和平條件中에는 北支五省占領이잇는데 이는多年日本이 夢想하고 오든바이요 日本의 亞細亞大陸侵略計畫의 第一의 目的을 達成하는것이다 그러나 列强大使로하여금 東京及南京에서 日支間의 和平斡旋이라고 傳하는案은 日本이 眞正으로和平에 應할意志를 갓고잇스면 무슨方法이든지 解決할수 잇슬것이다 이러한種類의 斡旋交涉은 決코障碍는되지안는다

官界勇退에際하야
林繁藏氏談

二十有餘年의 官海生活을떠나 [illegible] 으로 [illegible] 한 林前財務局長은 三十日局長室에서 [illegible] 하게左와如히 말하엿다

昭和三年봄에 朝鮮에온 [illegible] 前後二十四年동안이나 되는데 最近은 財務局長의重職을 [illegible] 히 오래가지고와다 이는歷代總督總監의 두터운 [illegible] 와 多數先輩友人의指導 一般官民諸位의 끄러엽는도거운 同情의援助로 眞實로 感激하야 마지안는다 只今 官吏生活을 떠남에際하야 상가衷心으로感謝의辭를드린다

×

在官中의 큰事件을 回顧하여보면 關稅制度改正、朝鮮鐵道의 直營 産米增殖計畫樹立、水利組合의 整理問題、朝鮮의 治山治水의 根本對策及 山林政策樹立問題、窮民救濟對策問題、朝鮮의 稅制改革에 關한 調査와 그實施에 關한 多年의 經過、金融機關의 問題等이 잇는데 官民協力으로 그 成果가 一層顯著하야 現在躍進朝鮮의 姿態를 볼수가 잇게되엿다 躍進朝鮮을 爲하야 衷心으로 기피기뻐한다

余는 今後더욱 [illegible] 鮮에서 半島金融界의 一端에 參加하기로되여 微力이나마 朝鮮을爲하야 奉公하려고잇다 特히 金融界는 周知하는바와가티 半島財界의 至重한 [illegible] 이되여잇는데 余自身의 重責에對하야 [illegible] 有能한人士가 活躍하지안흐면 아니될터인데 余와가튼者가 重職을 汚케할가 두려운것과 또 一面으로는 時局이 時局인만큼 金融界도 非常한 難局에 面하여잇는때 [illegible] 마지안는다 그러나 今後는 努力하야 諸位의 恩顧의 萬一이라도 報하려고 [illegible] 今後에도 倍舊의 援助와指導를 주기를 切實히 바라는바이다

提燈의長蛇陣! 全市는不夜城化

生徒、町會員等二萬餘名參加 壯觀이룬昨夜戰勝奉祝行列

비때문에 연기되엿든 경성부주최의 상해(上海)전선전승축하 제등행렬은 드디어 삼십일오후 여섯시부터 거행되엿다 이날오후 여섯시에 부내 각남자 중등정도학교생도 전부와각정회 회원 이만명은 광화문통에 집합하야 만세를삼창한후애국행진곡과「전승의노래」를 부르며 순여순여 등불들고 장사의 행렬지어 진행하야 군사령부압까지 갓다가 삼각지(三角地)에 들어와서 대성황리에 아홉시반경에 무사히 해산하야 자유행동을 취하엿다 그리고남대문을 지나다가 각학교와 및 정회에서는 몇명식 대표자를뽑아 조선신궁에 참배하엿다

佐伯京城府尹 松井指揮官等에祝電

오날경성부 주최로 제등행렬을하는동시에 좌백(佐伯)경성부윤은 별항과가튼 전보를 발송하엿다

松井上海派遣軍 最高指揮官에게

貴軍將士各位는 上海方面敵前上陸以來連日連夜頑强한敵을攻擊하야 困難한 地理的障害와 近代化學兵器에 依하야 頑强히 抵抗하는支那軍을擊破하고 [illegible] 世界戰史에 빗나는 偉動을 樹立한것은 實로 感激에 不堪하는바이며 今日 上海方面戰勝祝賀提燈行列을 奉行함에 當하야 京城府民을 代表하야 閣下與麾下將士各位의 忠烈과 御勞苦에 對하야 深厚한 感謝의 誠意를 表하는同時에 名譽의 戰死傷者에게는 深甚한 敬意를 바치고 아울러 益益武運의 長久를 祈한다

戰勝奉祝寫眞 上은 總督府아페모힌 生徒들 下는 行進하면서 萬歲를高唱하는光景

長谷川第三艦隊 司令長官에게

閣下與麾下將士各位는 上海方面作戰以來 七十有餘日完全히江南의航行을 封鎖하는同時에 [illegible] 閘北一帶의 敵을殲滅하고 이를 占據한것은 全世界戰史에 빗나는偉動으로 實로 感激을 마지못하며 今日上海方面戰勝祝賀提燈行列을 擧行함에 當하야 京城府民을 代表하야 閣下與麾下將士各位의 忠烈과 御勞苦에 對하야 深厚한 感謝의 誠意를 表하는 同時에 名譽의 戰死傷者에게는 深甚한 敬意를 바치고 益益武運의 長久를 祈한다

○○兵團長에게

貴兵團의 先頭部隊는 昨二十[illegible] 來襲을 擊破하고 [illegible] 今日上海方面戰勝提燈行列을 擧行함에 當하야 [illegible] 武運의 長久를 祈한다

大川內陸戰隊司令官에게

貴陸戰隊將士各位는 [illegible] 居留民의 保護와 [illegible] 에 任하면서 [illegible] 閘北一帶의 敵을 占據하야 世界戰史에 光輝잇는 偉動을 樹立한것은 實로 感激에 不堪한다 本日上海方面戰勝祝賀提燈行列을 擧行함에 當하야 京城府民을 代表하야 閣下與麾下將士各位의 忠烈과 御勞苦에 對하야 深厚한 感謝의 誠意를 表하는 同時에 名譽의 戰死傷者에게는 深甚한 敬意를 바치고 益益武運의 長久를 祈한다

"引退는廢校가아니다 今後로도繼續經營"

大邱啓星、信明兩校長 玄居善氏 往訪記者에言明

속보=조선북장로교선교회(北長老敎會)경영의 평양(平壤)의 숭실(崇實)전학교와 경성(京城)의 경신(儆新)학교 대구(大邱)의 계성(啓星)신명(信明)학교존폐문제에관하야 여선교회『맛순』회 실행위원장 로해리(盧解理)씨명의로 선교회의 교육인퇴경과와 평양삼교의 폐교(廢校)수속 또는 경성의 경신학교와 대구의 계성 신명학교의 인퇴에관한 성명서가 이십칠일에 발표된것은 기보하얏거니와 이성명이 발표된 당일아침에 대구계성학교 교장 현거선(玄居善)씨가 돌연경성에 들어와서 로해리(盧解理)씨를 방문하고 장시간 협의를한다음 이날오후네시삼십분차로대구로 돌아갓다 이계성학교교장이 경성에온데대하야는 최종 평양삼교가 드듸어 폐교수속을 하게까지 여러번스나 대구의 계성 신명두학교는 선교회에서 인퇴(引退)의결의는 하엿슬지언정 어룰폐교한다는 어르지는 아헛는데 항간에는 대구의 두학교도 폐교한다고 하는설이 돌고잇슴에대하야 그근원을 규명해보려 온것이라고한다 현교장은 경성역두에서 기자에대하야 다음과가티말한다

대구의 두학교에 대하야도물론 선교회에서 인퇴를 결정한이상 그선교회의 결의에서 버서날수는 업스나마 이인퇴를 곳폐교라고 단정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대구의 두학교는 다른학교와 달러서『맛순』회와 경북장로회(慶北長老會)와의 공동경영의 형장에 의하야 경영하여오는것임으로 이것만으로도 절대로 폐교의 최종적경우에까지 이르지못할것입니다 선교회의 결의대로 하드래도 후명년삼월까지는 그전대로 경영해나갈것이고 그후라도 선교회의 결의범위안에서 또는 회무당국의 량해한 도안에서 절충하야 충분히 경영을게속하야갈수가 잇습니다 만약에『맛순』회의 경제적보조가 중지된다고 치드래도 다른길로 로선돌이지거 녀피잇고 경북로회와 또는 민간유지의 힘을빌려서라도 경영을 게속할수잇지 안켓습니까 종교학교로서의 체면을 녀피하 가지면서 학교를 살리고갈수 잇슴을 멧습니다 오늘서울올것은 무슨공으로가 잇서서가아니라 대구학교는 아무일도업는데 폐교한다니 무어니 떠들기때문에 로해리씨를맛나 이점을 물어보기도할겸 물어볼것도 잇고해서 잠간 왓든것입니다 대구학교의 폐교운운은 그러케들 말하는 그당자가 잘못아라친것이라는 것인도 로해리씨로부터 잘듯고 엿엇습니다 대구학교는조금도 념려할것 업습니다 나역시 금후경영에도 락관하고잇습니다

平壤社會에歡聲

崇專校友會、敎授會、學生會 李鍾萬氏에感謝電報

【平壤支局電話】리종만씨의 허락[illegible] 전평양사회에 전하야지자 [illegible] 안도와 만족의빛이 넘치고잇스며 학교관계자는 [illegible] 학교내외는 한동안 경희의 도가니로 화하야버렷다 숭전교우회에서는 경성리씨에게『모교구주(救主) 리종만선생만세』라는 전보를 [illegible] 는동시에 동교 교수회와 학생회에서는「숭전경영[illegible]」어라는 결의와 격려의전보를 보내엿다

朝鮮女性에適合한 醫專設立研究中

近日中役員會開催一切決定 「女子醫講」은合流生徒引繼

속보=고김종익(金鍾翊)씨의거부로 말미암은 녀자의학전문학교설립에 관하야는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좌등강장(佐藤剛藏)씨가 보성전문학교(普專)교수 옥선진(玉璿珍)씨와 변호사 리인(李仁)씨와의 손을붙잡하야 설립에관한 의속을 바덧다함은 석간에 보도한바어니와 좌등씨는 곳회회당국측의 량해를 구한후 동중정(東崇町)에잇는 [illegible]에 창립사무소를두고 동경 대판 구주(九州)등지에잇는 녀자의학전문학교내용을 참고하야 어떤것이 가장 조선녀성에게적당할가? 저장조사를 연구중이란는데 언이대체로 설립되엿슴으로 십일월중순에 경부자측저리를 망라한역원회의를 열고최후결정을 하기로되엿는바 역원은 아직결정되지아닛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안의 내용은 말하지안흠으로 상세히 알기어려우나 어떠확실한 측에서 들어보면 녀자의학전문학교를 창설하되 그학교에 지금까지잇든 경성녀자의학강습소를 합동하여 그생도들은 인계하게될것은 확실하다고한다

創立事務所側談

이소식을 듯고 좌등씨댁으로씨를 차즈니 매마춤 엇는해부제(解剖祭)에 참석하고 업슴으로 다시 리인씨의 사무소에서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지금여러가지로 다른학교내용을 참고하고 또매망이 [illegible] 의견도 종합하야 조선녀자를 가르키는데 가장적당할 [illegible] 교 토의한후 학교당국과의 [illegible] 호교섭을 하게될것입니다

貫鐵町에强盜

便所로부터侵入·家人脅迫코 貴金屬品强奪逃走

삼십일 오전세시반쯤하야 부내관철정(貫鐵町)팔십오번지의십칠호 엄이섭(嚴以燮)(二七)녀(女)의 집에 변소찰내는 구멍으로부터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먼저경대 속에든 싱글금시게 한개와 현금 일원팔십전을 절취한다음 전기 엄이섭의실모 량주명(梁柱明)(六二)을위협하야 금비녀 금귀게 금반지각한개 시가 백원어치를 강탈하여가지고 어데로 잠적하엿다 이급보를바든 종로서에서는 부내각서에 수배하는한편형사대를 총동원식혀 범인을엄탐중이다

乘務員不親切로 老人切脚

전차종업원의 불친절이 로인의다리를 분질럿다—삼십일오전 [illegible] 종로오정목 네거리에서 전차를 라려는 종로오정목오백칠번지 박제환(朴濟煥)의처(妾)이란로인이 전차가운데입구로부터 라려고 한다리를올녀노앗슬때 갑작이전차가떠나 로인은드디어떠러저 외편다리를 전차바퀴에 담어갓스나 로인이라 생명이 위독하다 동대문서에서는 승객이 다오르든뒤에 발차신호를하여야만됨에도 불구하고 일즉이 [illegible]

暴利取締範圍擴張 朝鮮에서도實施

卅日附府令으로發表

정부의 폭리취체령(暴利取締令)적용범위확장에 따라 총독부에서도 삼십일부로 부령(府令)제일백륙십삼호로써 지난번에공포된 부령제구십팔호(폭리를목적으로하는 매매의 취체에관한건)제일조중에 개정을하야 직일시행하야 일본내지동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되엿다 개정요항은 다음과갓다 제일조제일호이하를 다음과가티개정하엿다

一、금속및그원료와 금속제품
二、흑연(黑鉛)붕사(硼砂)운모(雲母)
十一、석면(石綿)및 그제품
十二、석탄『코-스』련탄(煉炭)및 목탄
十三、면화 삼(麻)『스테이블파이버』양모(羊毛)기라 [illegible]
十九、실(생사를제함)포백(布帛) 편물(編物)및그제품
十五、조하및그제품
十九、기름(油脂)및그제품
二十五、사탕 조수육(鳥獸肉)조란(鳥卵) 빼러 홍차 커피 커코아 조제조미료(調製調味料)
二十六、세멘트 개와 모래 석재 라움 기류
二十七、목재

總督府美術館

新築키로決定

近日中着工하야明秋竣工 美展도秋期로延期

총독부에서는 미술의전당인 미술관(美術館)을 공비십수만원 어계년계속사업으로 신축하기로결정하엿다 지금총독부박물관 뒤뜰에다 터를정하고 근근공사에 착수하야 명년가을까지에 준공될것으로 명년봄조선미술전람회는 새전람회장의 완성을기다려 가을에 열기로 되엿다

雨後의全道氣溫

平年보다降下

仁川觀測所發表

【仁川】벌서 만추(晩秋)를 당한 오늘이엿만 동래동사동(冬)래來에의 악이으로 작금천후는봄을 맞는날과가티 그온도를 게속하야오든바 지난이십칠일부터 이일간의 강우로인하야 비뒤에는 다소차워지리라고 전하든바 그후에 인천관측소 발표에의하면 비개인 삼십일 오전륙시현재 각지기온은 일도내지 사도가 평년보다는 약혼편이나 여기는 비뒤에오는 일시적현상에지나지안코 여섯일후에는 또다시 날새는 따뜻하야질뜻 하다는바 삼십일 오전륙시현재 각지우량과 기온급 평년비교는 다음과갓다한다

▲中江鎭	○、五度	四度低	
▲新義州	六미리	二度	一度低
▲平壤	一二미리	一度	四度低
▲仁川	一二미리	五度	二度低
▲京城	一七미리	三度	一度低
▲全州	三六미리	七度	一度低
▲木浦	四〇미리	二度	一度低
▲淸州	二八미리	四度	三度高
▲雄基	四미리	六度	三度高
▲元山	二〇미리	七度	—
▲江陵	九미리	九度	二度高
▲秋風嶺	一九미리	八度	—
▲大邱	四미리	三度	六度高
▲釜山	六三미리	一度	三度高
▲蔚山	三九미리	一度	—
▲城津		一度	

大學生으로假裝 書籍專門窃盜

제국대학의 전목정모로 당당한대학생으로 가장하야 서내각책점을 마음대로 출입한 괴한이 어동대문서에 붓잡혓다 이 십구일저녁 여서시경 종로서점목에 대하야 경전당국에 경고를하기로되엿다

【詳細】대학생을 동대문서 목로(牧瀨)형사가 수상히여이고 본서에다 려다가 취조한결과 대학생이란 멀정한 거짓말로 그는 고복정(高福町)구세군 제오소대소년국조(少年軍曹)로 다니든 현재정(峴底町)사십륙번지의 오백오십오호전파삼번리도달(李道學)(三)으로 구월조에 고등상으서 정복전모를 사서홈하한대학생으로 가장하고 그달월흥일 본정대판옥호서점(大阪屋號)에서 책십여권을훔친것을비롯하야 종로발문서관(博文書館)덕창서림(德昌書林)등으로 드나다니며 삼십여차례에 버여권의책을 훔친것을 자백하엿스나여죄가 만흔모양으로 게속취조중이다

皇軍臣民誓詞

映畵化大歡迎

총독부에서 제정한 황국신민의서사를 영화로만드러 널리전조선에 배부할계획하에 위선열세개를 제작하야 부내각상설관에서 상영시켜고 잇섯든데 성적이 매우량호하야 전조선각지상설관급 각단체로부터 주문이 살도하든동 어석구일까지 의이 일백여덜개의 주문에 달하엿다 고한다

日曜講話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그리스도의증명 金永燮 氏
午後七時 永遠의生命 金永燮 氏
◇三淸町敎會 午前十一時 自信을得할 金鑛浩 氏
午後七時 信仰과靑年 李昌泰 氏
◇宮井町敎會 午前十一時 婦人宣敎會 洪애쓰더氏
午後七時 讚美와宗敎 崔仁浩 氏
◇基督敎會 (仁川松峴町敎會) 午前十一時 靈의糧食 申新根 氏
午後七時 所願이何也 申福根 氏

水原軍浦間

京釜複線工事完了

十一月一日부터運轉開始

경부선(京釜線)수원(水原) 군포(軍浦)사이의 선로복선공사는 요지음에 완성되여 [illegible] 엿스므로 오는십일월일부터운전을 개시하기로되엿다한다

松高와崇實準決에

今日午前은陸上、午後엔蹴球戰 綜合競技蹴球白熱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八回全朝鮮綜合競技 蹴球大會第一日中學部戰은 三十日午後一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다 昨年의覇者 徽新學校가 第一回戰에서 敗退 [illegible] 新軍이 昨年의覇者 徽新學校를 二對零으로 물리치고 第二回戰에 드러가 養正高普와 對戰케되엿고 第二回戰에서는 開城松都高普軍이 中央高普를 二對零으로 快勝하엿스며 關西의 雄崇實中學對中東學校戰은 兩軍接戰끄테 一對零으로 崇實軍이 凱歌를 부르니 松高와崇實이 準決勝에드러갓다 그리고 今三十一日에는 午前中에 陸上競技를行하고 午後二時半부터 中學部第二回戰인 培材對 淸州戰과 中學部第二回戰의 二十分에는 一般部第一回戰의 淸州蹴球團과 東邦蹴球俱樂部의 對戰이잇서 [illegible] 蹴球大會에는 蹴球技의 普及向上을目的으로 觀覽料는 大衆料金으로하야 一般十錢과 學生五錢式을밧기로되엿다한다

【第二回戰】 松高 2 中央 0

【前1…0 後1…0】

開城松都高普對中央高普戰은 [illegible] 結局 二對零으로 松高軍이 勝하다

【第三次戰】 崇中 1 中東 0

【前1…0 後0…0】

崇實中學對中東學校戰은 同日午後四時三十七分부터 朴義鉉(主審)金化泳 金容泰(線審)三氏審判下에 中東軍의 킥어프로 開始되여 兩軍技術伯仲하야 得點할機會가 어서 보이드니 崇中軍이 前半戰에 一點을 獲得하야 後半戰에 드러서 得點업시 結局 一對零으로 中東軍을 敗하게되다

【松高】		【中央】
[illegible]	LW	金元鎬
[illegible]	LI	崔炳熙
[illegible]	CF	李漢白
[illegible]	RI	許 [illegible]
[illegible]	RW	金[illegible]
[illegible]	LH	徐東[illegible]
[illegible]	CH	李[illegible]
[illegible]	RH	朱炳[illegible]
[illegible]	LF	金昌[illegible]
[illegible]	RF	李丙[illegible]
[illegible]	GK	李[illegible]

對廣島戰에 淸津大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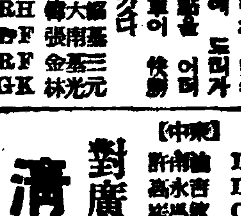
六對零으로

【東京支局特電】第九回明治神宮體育大會蹴球競技地方對抗戰은 三十日午後、神宮競技場에서開幕되엿는데 이大會에 朝鮮代表로出場한 淸津蹴球團은 이날第一回戰에서 廣島高師軍(中國代表)을 無難히 六對零으로 물리친後 明十一月一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열리는 準決勝에서 富山師範蹴球團(北陸)對關西學院(關西)의 勝者와 對戰케되엿다 그리고 決勝戰은 十一月三日午後에 [illegible]

【淸中】		【廣中】
[illegible]	LW	許[illegible]
[illegible]	LI	高永[illegible]
[illegible]	CF	崔昌[illegible]
[illegible]	RI	金仁[illegible]
[illegible]	RW	李[illegible]
[illegible]	LH	[illegible]
[illegible]	CH	[illegible]
[illegible]	RH	[illegible]
[illegible]	LF	[illegible]
[illegible]	RF	[illegible]
[illegible]	CK	[illegible]

張祐植堂堂一着

明治神宮自轉車競走에



寫眞은 張祐植君

【東京】第九回明治神宮體育大會學生自轉車競技第一日…第二回全日本學生自轉車手權大會는 明治神宮體育大會自轉車部、日本[illegible]의主催로 十月二十九日午前十一時 戶山學校 大運動場에서 열리엇는데 決勝成績은 다음과가트며 千米와 萬米에는 우리의冰上代表 張祐植君이 堂堂히 優勝하엿다

【千米】1張祐植(明大)一分三四秒五 2二瓶(慶大)一分三六秒二 3松本(明大) 4 [illegible]

【五千米】1栗山貞義(明大)九分五九秒F 2張日弘(明大)九分五九秒三 3松下研一(慶大)十分F 4荒木正男(慶大)十分一四秒

【一萬米】1張祐植(明大)一八分一秒八 2金原(慶大)一八分二秒三 3松下(慶大)一八分二秒四 4廣部(慶大)一八分五秒六 5金永俊(明大) 6朴忠洪(明大)

【四千米團體追拔決勝】1明大(張祐植、栗山、金永俊、金永俊)三分二七秒三 2早大 3慶大

▲各校得點=明大四四點、2慶大四二點 3早大二六點、4商大

籠球리그 十八팀參加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籠球리-그中學部戰은 來十一月五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同會館에서 擧行할 터인바 이에參加한團體는 第一部에 協實、培材、徽新、道商、靑學、中東、徽文等七팀이요 第二部에는 中央、普成、商工學院、普成、京師、一高、電機、京工、養正、漢城商業、二高等十一팀으로 總數十八팀에 達한다고한다

明治神宮競技

【東京電話同盟】明治神宮體育大會軟式庭球部 男子中等及一般女子戰과 國際式卓球單式戰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國際複式卓球經過

◇男子部庭球中等第二回戰
二高 李康 4…2 秋田 伊藤
高道商 尹李 4…2 岡田 鈴木
(其他 [illegible])

蕃事은不戰一勝

卅日럭비-戰績

朝鮮럭비-協會主催의 第十三回全日本高專럭비-選手權大會朝鮮豫選의 A組法專對醫專戰과 普專對藥專戰은 三十日에 擧行할豫定이든바 法醫戰은 事情에依하야 來十一月二日午後四時로延期되엿스며 普藥戰은 藥專棄權으로 普專이 不戰一勝하엿다 그리고 秋季리-그戰의 延信對京商戰은 十四對十一로 京商軍이 勝하엿다고한다

柔道選士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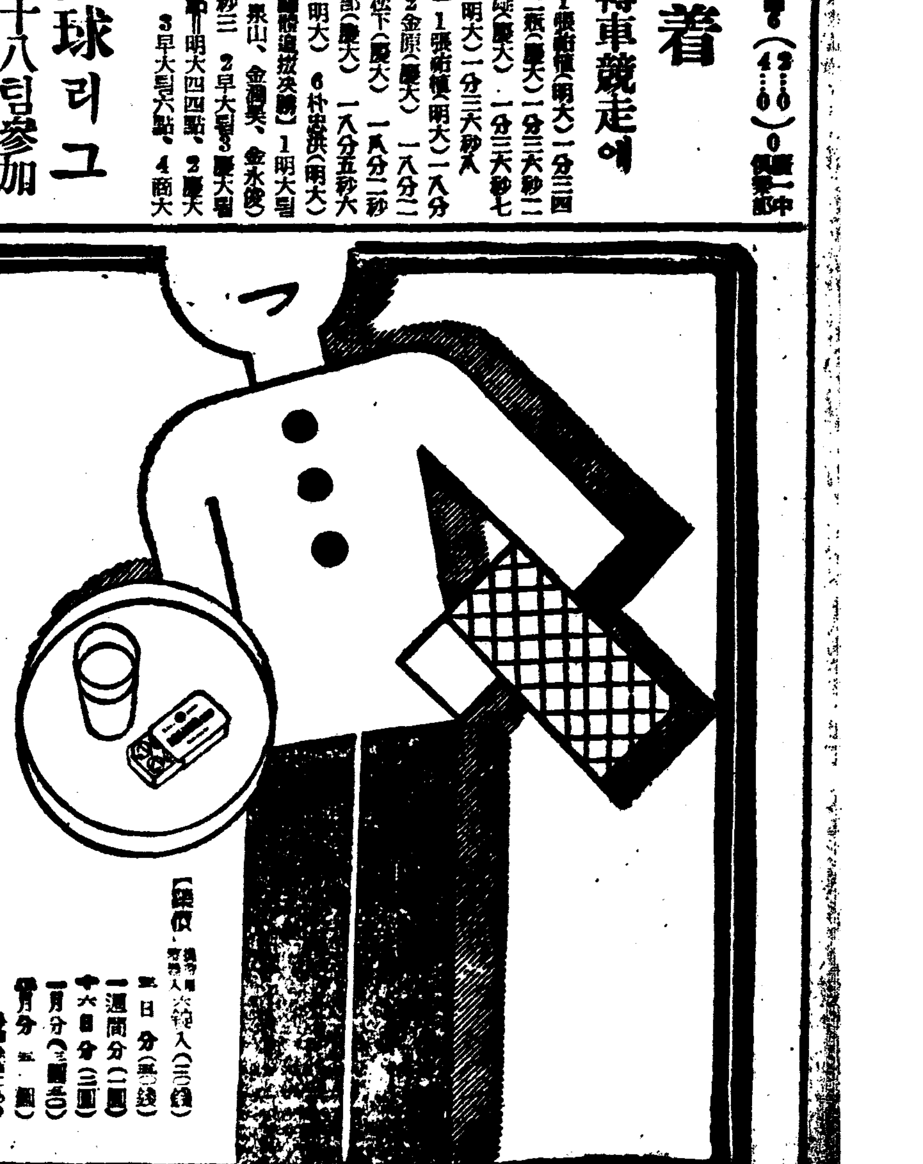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明治神宮柔道一般選手權試合은 三十日午後一時부터 日本靑年館에서 열리어 決勝리-그戰을 行한바 京都代表高木氏가優勝하엿고 朝鮮代表瀨戶口氏는第三位를 占하엿다

運動界人事

▲元德常氏(徽新明新學校蹴球團引率者) 人事次三十日本社來訪

今日의運動

▲綜合競技=朝鮮體育會主催 第十八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第二日 陸上競技 午前九時 蹴球部中等部第一回戰 培材高普對淸州農業 午後二時 一般部第一回戰 廣州蹴球團對東邦蹴球俱樂部 午後四時 十分 以上全部京城運動場(觀覽料=學生五錢 一般十錢)
▲籠球=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秋季籠球리-그第九日 藥專對高商(午前十一時) 普專對高商(午後四時)(東大門大學籠球場)
▲럭비=朝鮮럭비-協會主催第十三回全日本高專럭비-選手權大會朝鮮豫選…B組高商對藥專(午後三時)◇秋季리-그戰 京城럭비對商工(午後二時)以上全部龍山鐵道球場(觀覽無料)
▲淸州農業學校蹴球部一行十五名은 綜合蹴球大會에 出戰次로 川西敎諭引率下에 二十九日入京 貫鐵町漢城旅館에 投宿中



胃酸過多

醉宿·痛胃·瘍潰胃

ノルモザン錠

노 루 모 잔

後、胃部에壓迫感이엇고二—三時間저나서胃痛이나고 선트룸과신물이올나오고、가슴이압흐고……

胃酸過多症狀이엇슬때는 노루모잔錠을服用하면迅速 또 安全하게治療됩니다

胃壁을守護……노루모잔錠의主劾分珪酸알미니움은먼저 胃粘膜을被覆保護하야患部或은潰瘍面에미치는胃液의刺戟을遮斷하고 胃粘膜을全面的으로防護합니다

胃酸을節制……다음에胃內에分解하야珪酸과擅化알미니움이되여珪酸은過剩의胃酸을吸收하야酸度를低下식히며、一方鹽化알미니움은胃腺을收斂하고胃酸의分泌를制限하야疼痛을除去합니다

胃痛을除去……로-도엑쓰를配合하엿스므로、疼痛을一層緩和식힙니다

【効能】胃酸過多、胃潰瘍、胃가다루、가合아리、신물、留飮、선트룸、胃痛、便秘、惡醉、胃痙攣、宿醉、船暈、車暈

【價】[illegible] 一日分 一週間分 十六日分 一月分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小西新兵衛商店

27—269(O)

滿洲國工業開發에 大投資會社設立

外資를導入·日産이主宰經營

産業開發機構에變革

【新京二十九日發同盟】日滿兩國을一丸으로한 工業生産力의急速한擴張은 戰時經濟機構下의 最大課題로 近衛內閣成立以來 일즉이 兩國朝野의 研究目標로되어잇든바 이번支那事變을 契機로一刻이라도 速히 解決이 必要하게되엇스므로 滿洲國政府는 九月以來 二回에 亘하야 岸産業部次長을 渡東시키어 日本關係各當局과의間에 協議를 行한結果 드되어 滿洲國産業五個年計畫에 即應하는 工業資源의開發에當할 國營機關으로 資本金四億五千萬圓의 大投資會社를設하기로 決定하얏다 同社는 鐵道、石炭、輕金屬、自動車、航空採金等 各重工業部門을 그傘下에包含하는 綜合的事業會社로서는저도 年內에는 創立하게 되엇다 이로滿洲國建國以來 國家的計畫經濟遂行의 分體가되어잇든 各特殊會社에 依한部門別의産業開發機構에 根本的變革을주게된터이다 即滿洲國經濟開發의方策은『經濟建設綱要』及『重要産業統制法』에 基하야國家的統制下에 그第一期建設工作을 經驗하얏는바 從來의 業績을 도라보건대 建設資金、技術、經營方法等의 諸點에對하야 往往 所期의 計畫遂行이 不充分한 點이잇슴에 鑑하야 今後 經營資金은 될수잇는限 外資 特히 米國資本의 導入을 企圖하고 他方에잇서서 技術과 經營方法은 모다 日本産業의 積極的進出을策케할方法이다 即 右統制會社의 指導經營은 日本政府와의 緊密한 提携下에 滿洲國政府가 이에當하는것인데 企業의 內部的經營에 關하야서는 從來의 半官的定着性을 一掃하고 相當한 程度의 自由經營方針을 取하야 日本産業會社로하야금 資本的、人的技術的經營下에 百%의 手腕을 두르게하려는것으로 事實上 日産으로支配會社를 擧하야 滿洲에 企業的移動을하게될터인데 此點 日本産業資本과 滿洲新興産業과의强固한 提携는 將來의 對滿經營의 根本的轉換을 보게할것으로 자못 注視되고잇다

各重工業部門會社 新設會社에統合

【新京二十九日發同盟】近近 創設될 滿洲重工業株式會社(假稱)의 出現으로 旣往의各種特殊會社를 通한 滿洲産業開發機構는 百%의 劃期的轉換을보아 그影響은 日滿産業界注視의 焦點으로 되어잇는데 滿鐵傍系各會社中 重工業部門에 屬하는것은適當한時期에 그때마다 株式의開放을하야 積極的으로 新規統制會社에 統合할 方針이다 그러고 目下 問題로되어잇는 撫順炭坑을 滿鐵에서 分離獨立시키어 그新會社에 옴김은 當面하지안키로 決定하고 昭和製鋼은 近近 滿洲及 日本과 折衝하야 新會社設立까지에 約半數의 株式을 新會社에 委讓하리라고보인다

重工業總裁 鮎川氏內定

【新京二十九日發同盟】近近 創立될 滿洲重工業株式會社(假稱)總裁는 現日産社長 鮎川義介氏로 內定되엿다

北支開發方策 樹立問題를協議

十河氏財界人을會見

【東京發電】北支經濟開發問題는目下 그開發機構確立에 關하야政府에서 愼重히 考究하고잇고財界方面에서도 이에 呼應하야漸次 意見을 收集하야 國策決定에 寄與하려고 進行하고잇는바 興中公司社長 十河信二氏는本問題에關하야 財界方面과 意見을 交換할 必要를 認하고二十七日午後 東京電燈에서 鄕誠之助男及 小林一三氏와 會見하엿다

十河氏는 北支經濟開發方針을急速히 決定할 必要를 力說한後 北支의 交通及 權要産業은特殊한 統制機關을 設置하야統制케하는同時에 他方 北支電力事業에잇서서 現在 實行하고잇는것과가티 日本의 産業別『트러스트』와의 直接資本結合을 圖하는 길을 여러 名實共히 日滿支經濟『뿔럭』을 確立할것이라는旨를 述하엿스며 此에 對하야 鄕男은 北支經濟建設에 對하야서는 外國資本에對하야 積極的으로門戶를 開放할것이라는것을 强調하고 또 小林氏는 이번의事變에依하야 直接多大한 犧牲을한 國民大衆의 우에 開發方針을 樹立할것이라는 意見을 吐露하얏는바 財界로서도 鄕男、池田兩參議等을 通하야 適宜히政府에 建議하게될 模樣이다

蒙古自治政府 組織大綱宣明

【厚和豪特二十九日發同盟】蒙古聯盟 自治政府는 二十八日의蒙古大會의 宣言決議에 依하야成立되엇는바 蒙漢代表는 繼續하야 自治政府의 主權、領域施政綱領、國旗、年號와 領域內의特別 行政區及所屬機關의 權限을定하야 如左한 政府組織大綱을決議하고 共産防止、蒙漢協和의施政方針을 宣明하얏다

政府組織大綱

第一條 蒙古聯盟自治政府의 主權者를 主席으로함 主席은蒙古大會에 依하야 德望이 高重하고 또 蒙古復興運動에큰功勞가 잇는者를 推任함 主席은 蒙古聯盟自治政府의 主權者로함 主席事故잇는때는副主席이를 代行함

第二條 蒙古聯盟自治政府는 蒙古 古有의 疆土로써 領域으로하고 漸時 烏蘭察布盟、錫林郭勒盟、伊克昭盟及厚和豪特(綏遠歸化城의 改名)包頭兩地로써 그統治區域으로함

第三條 蒙古聯盟自治政府는 共産防止 民族協和의 施政基本이되는 生聚敎興養德의 六字로써 施政綱領으로함

第四條 蒙古聯盟自治政府의 旗章을 藍地左上角에 紅黃白縱列로함

第五條 蒙古聯盟自治政府는 成吉思汗紀元으로써 年號로함

第六條 蒙古聯盟自治政府를 厚和豪特에 置함

第七條 蒙古聯盟自治政府 及그所屬地方機關의 權限은 均衡의 原則에 基하야 따로 法律로써 이를 定함

第八條 蒙古聯盟自治政府의 組織法은 따로 이를 定함

最高方針表示機關 『大本營』設置機運

【東京發電】支那事變의 最終目的遂行의 軍事行動、事變收拾等의 帝國의 最高方針表示機關으로 大本營 또는 이에類하는것을 設置할것이라는 意見이 朝野各方面에 이러나 政府 軍部內의 一部反對論은 最近 漸次解消되고잇서서 大勢는 設置論에 기우러지게되엇다 그리하야 그決定時期는 事變의 推移를 본後 設置할 意嚮이다 이는 支那가 敗戰에 鑑하야 速히 깨닷고 帝國과 提携하야 東洋平和確立에 轉向하면모르되 그러치안는限 帝國은 國家總動員의體制下에 어데까지던지 徹底的으로 目的을 達成하려는 意思의 表現이라고보인다

蘇聯스파이掃滅强調

蘇聯의 赤僞 謀略工作은 最近 滿洲工作의 進展에따라 더욱 露骨하야 今日이즈베스챠紙에 揭載된『動物의 秘密』中에는 劇된 表札撤廢禁示、建物의 壁乃至 官廳等에 公示된 告示命令은 一切撤去치안흘것 秘密한 業 集會의 日錄을 記載한 書告禁止 責任잇는 地位의 人士의 死亡을 新聞에 掲載치안흘것의 條項이 最近에 어른嚴重히 實行되여 從來의 秘密主義가 더욱一層强化되게되엿다。

外蒙의名義로 軍需品供給

蘇聯의對支援助方策

確實한側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蘇聯은 九個國會議의 終了를 기다리어 外蒙의 名義로支那에 軍需資材를 供給하기로決定한것이 報道되엿다。右는 報와가티 蘇蒙關係의 緊密化를立證하는것이거니와 外蒙의 名義로 支那의 軍需資材를 供給함은 表面은 外蒙의 獨立性을强化하는것가티보이나 實質에서는더욱 蘇聯의 隸屬化의 進展으로 一面으로는 蘇蒙同盟의 解消에 依하야 南京政府의 外蒙에 對한 宗主權을 認定하려하며 또 一面으로는 如斯한手段으로써 外蒙의 獨立을 認定시키려하는 蘇聯의對支援助의 不即不離의 技巧의 表現으로 그사이에 介在하야 外蒙의 權益을 把握하랴는 蘇聯의 對極東方策의 一端을 窺知할수잇는것으로 極히 注目된다。

强制買上廻避 節約金集中

大藏省에서方法研究

金準備强化、國際收支改善을爲하야 新産金外 民間에서 節約한 金의動員이 問題되게되엿는바 大藏省에서는 現在로서는强制로買上할 必要는업다고보고잇서 民間에서 節約한 金을國庫에 集中시키기爲하야 適當히指導하도록 여러가지方法을 研究하고잇다 即大藏省에서는 日本의 一般風習으로 特히 金器具를 使用하는것이 적어 따라金의 强制買上에 依하야 도리혀 여러가지 摩擦이 어러날 念慮가잇다고보아 大體 强制買上은 하지안흘方針이고 오히려 現在 金節約運動의結果 各方面에서節約한 金이 古物商 그他에依하야 다시散逸하고 不當한 價格으로 取引되어 金節約運動의防害가되는 弊害가 生치안토록適當히 集中함이 必要하기때문에 그施設을 研究하고잇다

日銀의金融統制 名實共히完成

市中銀行大部分聯繫

【東京】月末의 金融市場은 緊縮裡越月케되엇는데 日銀當局에서도 今次事變勃發以來 金融의 中樞機關으로서의 立場에서 從來의 門戶閉鎖的態度를 一擲하고 市中大銀行은 勿論될수잇는대로 大規模로 廣範圍의 融資에 應할方針을 取코잇다 그結果八月以降 取引關係를가지기에 至한銀行은 普通銀行十五行、貯蓄銀行十行을 各其增加하야 二十六日現在에 百七十行에 達하얏다한다

如斯하야 市中銀行의 大部分이 어떤形式으로던지 日銀과 關聯을가지게되고 他方 地方에잇서서도 通穀資金調整法의 實施以來 日銀支店이 中心이되어 地方金融團體를 結成하고잇는 關係로 이方面의 取引關係도 相當히 增大된모양이다 從하야 戰時體制下의 日銀의 役割은 過去의 特殊銀行으로서의 機能에다가 名實共히 金融界의 統制機關인 立場에까지 擴大된것이라한다

北支經濟開發問題 ⑭

青島에서天津으로 紡績業의中心移動

紡績工業이 北支에서 如何히 重大한 役割을하고잇는가함은 前述한바와갓거니와 治安의 回復을따라 벌서 回復을 보인것은 實로 天津을 中心으로하는 紡績工場이엇다 事變勃發後 一個月의 八月六日在華日本人紡은 戰火가 아직 사라지지안코 混亂中에 벌서 操業을 開始하얏다 그後 一時的으로는 閉鎖하지안흘수업는것도잇엇스나 公大六廠 裕大紡이 率先하야 晝夜運轉을 復活하야 今日에는 八割가까히의 能率을 올리고 公大七廠 裕豊紡도 또한 五、六割의 能力을 發揮하게되엇다

此等의 紡績은 將來豫測에對하야서는 樂觀、悲觀의 兩觀測에依하야 操業態度에 積極消極의 區別이잇서 戰禍、水災를 蒙한 農村의 消費가 減退하리라고 豫測하는者는 消極的이고 이에反하야 山東紡績生産休止에依한 需要增加를 豫測하는者는 天津에서 積極策을 取하려하고잇는바 如何間 今後 日本의 在華紡이 上海로부터 青島로 또 青島로부터 天津으로 中心이 移行할것은 必然的으로 天津을 中心으로하는 日本人紡의 黃金時代가·出現할것도 不遠한 將來일것이다 그런데 此等紡績의 다가는 最大의 懊惱는 爲替管理資金調整法等으로 資金難이 伴하는것 또 現在의 操業이『코스트』高로 되고잇는것等이고 또 當面의 問題로서는 水害와 戰火에依한 棉花의 凶作等도 考慮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北支紡績은 多少의 困難은 잇다할지라도 그發展은 必至할것으로 그將來性에, 對하야 小島精一氏는 다음과가티보고잇다

一、天津及青島는 背後地에豊富한 人口를 擁하고 背後地人口와 紡錘數의 比例는 上海等과 比하야 甚히적으므로 그點擴張의 餘地가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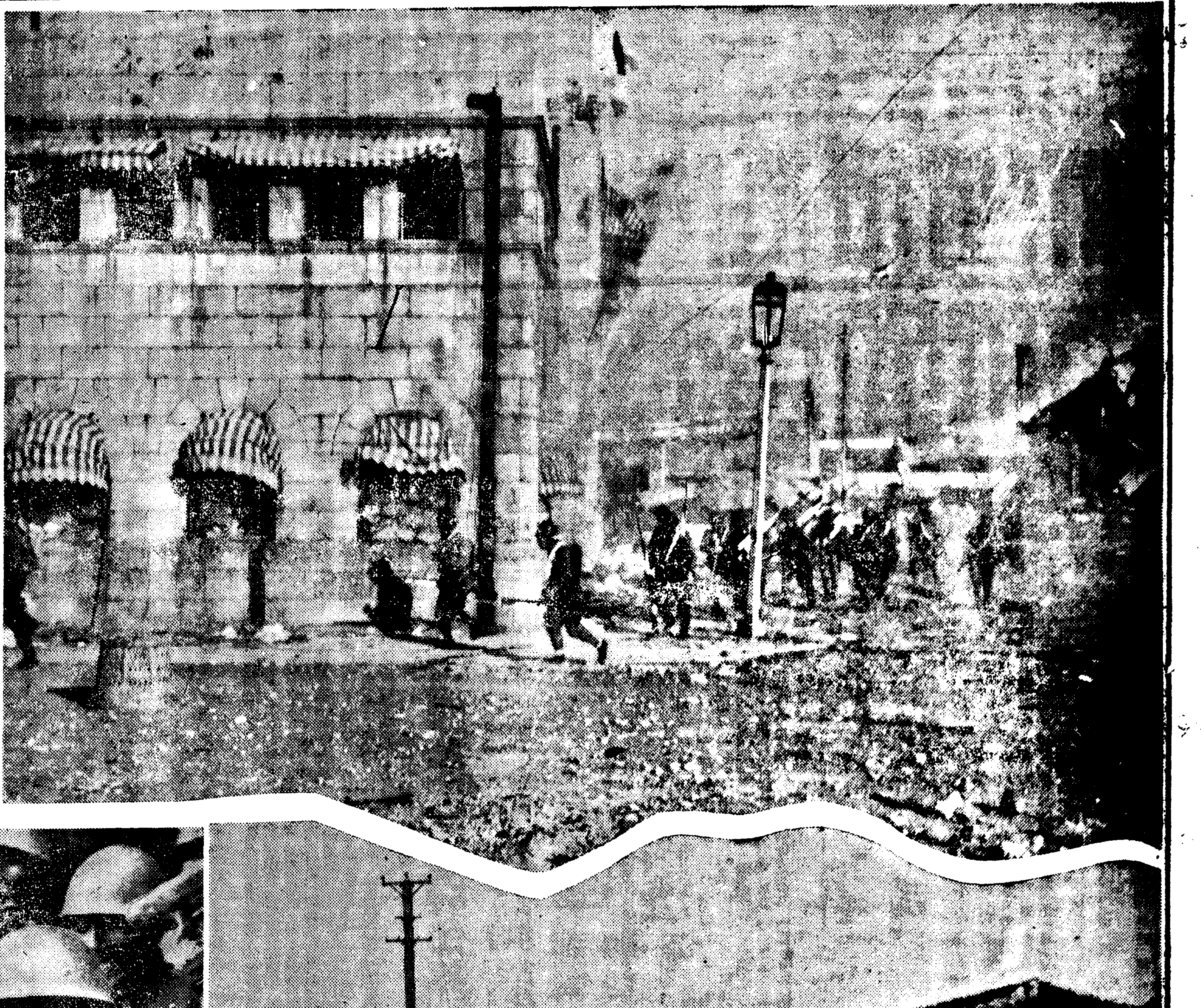
二、全支的으로볼지라도 人口對紡錘數는 世界平均一錘當十三人에對하야 支那는 八十人이므로 多少政情이 安定되고 農作物가튼것이 順調로販賣되면 全支的으로 消費가世界平均의 三分의一程度까지上昇할것은 생각할수잇는일이다 그境遇에는 支那의 紡績設備는 現在의 約倍量 即 一千萬錘가량까지 擴張할수잇다

三、다시 將來 日本品에對하야 排日貨 그他 政治的으로 不當한 抑壓이 除去되어 兩者가 自然그대로의 競爭狀態에 放任된다면 生産費가고 經營도 떠러지는 華人紡은 到底히 邦人紡에는 抵抗할수업슬것이므로 相當한 程度까지 現在의 支那紡을 代位하게될것이라고 생각된다

四、그리고 나아가서는『코스트』低를 利用하야 그海外進出이 크게 期待된다 그리므로 現在와 如한 發展期에 잇서서는 北支紡績의 擴張에 對하야서는 決코 抑壓等을일삼을것이아니고 一路積極的助成에 努力할것이어다

이라는것이 그結論이다 北支紡績의 發展이 日本內地紡績工業을 壓迫치안흘가하는問題가 論議되일도잇스나 北支紡은 現地의 需要에 基하야 細絲에잇서서는 二十番手以上程度의 太番手綿布에 잇서서는 粗布가 中心으로 生産되고 日本內地紡에 잇서서는細絲는 細番手가中心이 되어잇서 스사로 技術的으로 다르므로 自然 이問題는 解消되리라고생각된다

그리고 近代的의 紡織工場外에 山東省의 維縣地方、河北省의 寶坻及高陽地方의 家內工業加工織業—即 土布工業이 相當히 盛하야所謂『큐─텔·인더스추리』問題를 提供하고잇서 數年前의 調査에 依한 全支綿布消費量中 約八割은 이러한 家內工業에 依하야 占領되고잇든바 近代工場의 續出을따라 崩壞의 過程을 것고잇다 그러나 이手工業的生産方法에도 現分의 産業革命에 여러나 新然한 農家의 副業으로서의 存在를 畏失하고 農業商業資本의 손에 依하야 資本主義的으로 組織化되고잇다 特히 日本의 維貨工業에 發展에 高度化하는機의 使用보다도 廉價한 勞働力이 偉大하다한면 支那의 어러한 『큐─텔·인더스 추리』가 手工業과 資本主義工業과의 中間에 存在함도 可能할것이다 또 支那와 如히資本의 集中에 困難한곳에서 이러한 小規模經營을 都市에서 떠러저잇는 地方에 存在케함은 農村恐慌打開를 爲한 農村工業化로서 充分히 考究할 餘地가잇다 이『큐─텔·인더스추리』를 今後如何히할가 北支紡績의 發展과 아울러 充分히 考慮하여야할것이다



上海戰線

1 北停車場附近에서 突擊하는 白襷隊

2 閘北敵陣地一帶의 火災 (中央建物은 商務印書館)

3 閘北에 突入하는 谷川部隊

4 最前線에서 陸海軍部隊長의 劇的會見 (右岩下部隊長、左馬場部隊長)

5 王家宅敵陣地와 巡新鎭을爆擊

公營에서私營으로 電車「빠스」도讓渡
남어지는시간문제뿐으로
平壤府電問題告終在邇

【平壤】전국중에서 오직한개밖게 없는 공영전기인 평양부전이 전당파가를 조기미래서 서선합전에 병합하기로된것은 오래시간문제에 속해서 오래지안어 평양부전기과의 간판(看板)조차사라지고 말터인데 유독전기뿐이아니라 삼대사업이라고 하든전차(電車)「빠쓰」사업까지 전부를 서전에넘기기로 되여 전차빠쓰에 그쳐어 부전은 부전의『마ー크』(중앙원의 모표(帽標)단추등 전부가 변경될것으로부전의 종국을고할날이 례박혓다

緊急府會召集 府尹歸壤即時로

평양부전과 서선합전 량방의의견이 우에와가티 거의일치를보게되여스므로 시야(矢野)평양부윤은 이안을가지고 지난이십일부터상경 총독부 당국에 량해를 구하기로되엿는데 시야부윤귀양즉시로 부회를소집 부회의승인을 어든후 파란중첩하든 그리고 부전사업에 특기할동영 전기불입개사설회사에 합병혀다는 그야말로 회기적일정을 그리는합병계약이 성립될것이다

結價其後 重役問題
府電側八名主張에 西電側四名固執
그나마來月四日에確答키로 첫해엔두명,잇해후라야네명

서선기전(西鮮)에 합병케된 평양부영전기는 주(株)로 삼백오십만원 현금(現金)으로오십삼만원 부채상환(負債償還)으로 이백륙십륙만원합계 륙백륙십구만원에 결가(結價)되엿고그것은오직중역(重役)을파견하는문제가 남어잇슬뿐이라함은 기보하얏거니와 부리사자와 전기위원회가 집합한 석상에서는 현재 서선전기의 중역이 여십명인데 평양부로서는 적어도그 사할(四割)인여덟명을 파견하게로 결정되여 이뜻을 서전에통고햇섯스나 맹렬한반대가 일어나이십륙일 전기위원회 석상에서는 결국네명으로 양보하는태도에나아오는동시에 병합후이년동안은 두명, 그후에는 네명으로할것을 결의, 이뜻을다시 서전측에 통고햇다

그러나 서전측에서는 삼일날 사일에 개최되는 중역회에서승인을어지못하면 절대로 확답을 할수업다하여 결국사일오후에중역수에대한 확답을 할터이므로 이날의 회견을 지나지안흐면완전한결말을 지울수업스나 서전측으로서는 이것을 거절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아허결국 륙백륙십구만원으로 결가되는 동시에중역두명을 파견하고 병합후이년어지난 삼년재되는 해부터 중역두명을 증원하는것으로 최후의단락을 고하게될모양으로귀산(龜山)부전기과장이 상무(常務)로취임하고 남은중역한명은 금후결정하기로될터이다

兵庫縣協和會서 事業을大擴張

【神戶】지나사변이래 병고현하(兵庫縣下)에 재주하는 루만여 조선인은 국민적정신을 자각하고국방헌금과 황군위문금이며혹은 혈서(血書)조의 지원등을 한 바만흔터이므로 현당국으로서는 여에 감격하야 현사회과(縣社會課)내의 내선협회로부터 떠어천원의 예산을계상하여 병고현협화회(兵庫縣協和會)라 개칭하고 예산도 십삼만원으로고처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동시에 삼년후에는 일선인이라는구별도 업서질방침이라한다 이제 그실행방침을보면 현협화회에서는 래년도부터 중앙(中谷)삼궁(三宮)림전(林田)서미(西尾)주등(周藤)이단(伊丹)동지에 륙개지부를 창설하고 경찰서장이 회장의직무에 임하야 관내에거주하는 조선인은 전부회원이되여 생활의개선이며 사상선도를하고저 다음과가튼 사개조항을 철저히관철키로되엿다한다 더욱조선인을상대로하는 전문의직업소개소를두어 생활의지도상담이며 보호와 주택알선등 사업도 병행할터이라 한다 그리고 사개조항의 요지는 다음과갓다고한다

◆精神作興—國旗揭揚을奬勵、國歌合唱訓練、國體觀念의普及、祝祭日의理解、神社參拜義務觀念의養成

◆生活改善—生活葬祭의簡易化、家庭內職의奬勵、貯金奬勵、勤勞精神의養成、隣近親睦의奬勵

◆敎育—適齡兒童은 全部就學케할것、中年者는全部夜學시킬것、優良兒童表彰할것、幼兒의勞働을禁止할것、託兒所를設置할것

◆風俗改善—和服을奬勵할것、白衣의着用을禁止할것、火葬場行列의改良

◁▷ 가을보리심거예바쁜농군 長項郊外所見……▷◁

六百餘住民連署 新設驛誘致陳情
新市滄洞에서爭奪戰

【方峴】평북철도설계조부터 정거장설치에 다대한 관심을가져고 주목하던중 신시가(新市街)부근으로 내정되엿다는설이 유력함으로 창동(滄洞)부근시민삼백여명이 날인하여 창동목에 설치하도록 요로당국에진정하엿다는것은 이미본보에 보도되엿거니와 그후 신시가부근시민도 가만잇슬수업다하여 지난이십팔일 륙백삼십여명이 날인하여 동일진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으로 김승호(金承浩)씨외 십일명을 선정하여 진정서 오통을작성하여 총독부에는 우편으로발송하고 도당국과 회사당국에는 전경순(全景淳)리종연(李鍾淵)량씨가 출두진정케하엿스며 군당국과 경찰당국에는 최창율(崔昌律), 정석순(鄭錫舜)량씨가 출두진정할터인데 최후결정을 저모주시한다고한다

裡里에慰問金遝至

【裡里】리리의 황군위문금거출자는 그후계속해서 생기는중인대 그금액과씨명은 아래와갓다고한다

一圓式 黃澈洙 河性鎬 五十錢式 南龍熙 南鶴熙 一圓 宋淳奎 五十錢式 徐廷旭 金鏞萬 裵應煥 李漏禹 徐丙周 李秉顏 一圓式 李東鏈 車允石 黃熙壹 李耀榮 五十錢 南相九 一圓 姜信選 十錢式 鄭暐澤 安東基 五十錢 陳相建 一圓 白南熙 二十錢 金栽鄕 三十錢式 尹勒重 陳弼鉉 五十錢 陳相弘 三十錢式 張基星 金振榮 一圓 具祥祖 三十錢 金文卿 二十錢 陳昌浩 五十錢 宋淳樓 二十錢宋春植

元山市街地計畫概要(下)

等級	類別	番號	幅員	起點	終點	主要經過地
大路	一	八	二〇米	臥牛里 大路第三類八號路線	館豊里 第二八號廣場	湧洙里 第二五號廣場
〃	一	九	二〇	館豊里 第二六號廣場	館豊里 計畫區域境界線	(第二八號廣場)
〃	三	一	一五	元山驛前 第一號廣場	本町五丁目 中路第三類一號路線	
〃	三	二	一五	上洞 大路第一類一號路線	訪賀山里 大路第三類二號路線	第八號廣場
〃	三	三	一五	場村洞 第五號廣場	細洞里 第一二號廣場	大路第三類五號路線
〃	三	四	一五	石油工場前 大路第三類四號路線	訪賀山里 大路第三類二號路線	大路第二類一號路線
〃	三	五	一五	葛麻驛前 第六號廣場	細洞里 中路第一類七號路線	第一二號廣場
〃	三	六	一五	中淸里 中路第三類七號路線	中淸里 浦下川上流	
〃	三	七	一五	細洞里 大路第二類一號路線	細洞里 計畫區域境界線	大路第三類五號路線
〃	三	八	一五	榮町 大路第二類三號路線	明治町 大路第三類八號路線	赤田川橫斷
〃	三	九	一五	大和町 大路第一類三號路線	綠町 大路第三類八號路線	同
〃	三	一〇	一五	松興里 大路第三類六號路線	松興里 第二七號廣場	
中路	二	一一	一五	臥牛里 第一五號廣場	新豊里 赤田川上流	
〃	二	一二	一五	大和町 大路第二類三號路線	新豊里 中路第二類一一號路線	
〃	二	一三	一五	館豊里 第二八號廣場	湧洙里 中路第二類一四號路線	新赤田川橫斷
〃	二	一四	一五	湧洙里 第二四號廣場	同里 計畫區域境界線	
〃	三	一	一二	元山女學校橫 大路第二類三號路線	上洞 中路第二類二號路線	第二號廣場
〃	三	二	一二	新興里 中路第一類二號路線	橋下里 中路第三類三號路線	第九號廣場
〃	三	三	一二	訪賀山里 中路第二類三號路線	下村洞 中路第三類四號路線	大路第二類一號路線
〃	三	四	一二	場村洞 第五號廣場	中里三洞 大通	石油會社西側
〃	三	五	一二	同洞 第一〇號廣場	中里一洞 岸壁前	浦下川上
〃	三	六	一二	龍洞 大路第三類二號路線	龍洞 中路第二類三號路線	
〃	三	七	一二	同里 中路第二類二號路線	中淸里 西山麓	
〃	三	八	一二	細洞里 中路第二類五號路線	訪賀山麓	大路第三類二號路線
〃	三	九	〃	明治町 大路第三類八號路線	泉町二丁目測候所下	
〃	〃	一〇	〃	綠町大路第三類八號路線	松興里 中路第一類一〇號路線	
〃	〃	一一	〃	臥牛里 大路第二類三號路線	新豊里 中路第一類一一號路線	
〃	〃	一二	〃	臥牛里 中路第二類二號路線	同里 中路第二類一一號路線	
〃	〃	一三	〃	同里 中路第二類一四號路線	新豊里 中路第二類一一號路線	大路第二類三號路線
〃	〃	一四	〃	同里 大路第二類九號路線	館豊里 計畫區域境界線	〃
〃	〃	一五	〃	新豊里 大路第三類九號路線	湧洙里 中路第一類八號路線	
〃	〃	一六	〃	館豊里第二六號廣場	湧洙里 中路第三類一四號路線	大路第三類一〇號路線
〃	〃	一七	〃	湧洙里 中路第三類一六號路線	同里 中路第三類一四號路線	大路第二類三號路線
〃	〃	一八	〃	同里 中路第三類一五號路線	同里 中路第三類一六號路線	
〃	〃	一九	〃	館豊里 中路第一類九號路線	湧洙里 中路第三類一四號路線	中路第一類八號路線
〃	〃	二〇	〃	湧洙里新赤田川堤防	新赤田川西側山麓	大路第三類九號路線
〃	〃	二一	〃	同里第二四號廣場	〃	
〃	〃	二二	〃	同里新赤田川堤防	〃	中路第二類一四號路線
合計		五九				

六百餘住民連署

大阪서恤兵金獻納

【大阪】지난일요일부터 일주일동안은 국민정신총동원강조주간(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임으로 대판시내 학교(鶴橋) 중본(中本) 금궁(今宮) 금복(今福) 중진(中津) 복도(福島)등각경찰서관내에잇는 국민정신총동원을 적극적으로 고조하엿다는바 특히 복도경찰서관내에잇는 복도교풍회에서는 지난십일일이 총후애국일인으로 이날을 기하야 동회간부와 각구사업부 역원들이 총출동하야 각가정을방문하고 휼병헌금을 권유한결과당일 예모인돈이 일백삼십이원사십전이나 되여곳대판부협화회를 경유하야헌금수속을 하엿다고한다

十圓式 李[illegible] 李東[illegible] 五十錢 尹[illegible] 十錢 崔[illegible] 五十錢式 李[illegible] 金[illegible] 李公[illegible] 一圓 申[illegible] 五十錢 宋[illegible]浩 三十錢式 金[illegible] 李熙[illegible] 二十錢 李一[illegible] 五〇錢式 宋[illegible]浩 宋[illegible] 朴宅圭 申[illegible] 李[illegible] 宋[illegible] 申[illegible]永 一圓 金[illegible] 五〇錢式 申[illegible] 朴[illegible] 三 李正[illegible] 李[illegible] 十錢式 朴[illegible] 尹[illegible] 金[illegible] 徐基[illegible] 金[illegible] 一圓 [illegible] 甲[illegible] 三〇錢 林昌[illegible] 一圓 李[illegible]紀 五〇錢式 宋斗[illegible] 文[illegible]淳 一圓 李[illegible] 三〇錢 李[illegible] 五〇錢 林周[illegible] 七〇錢 金[illegible] 三〇錢式 金[illegible] 崔成[illegible] 一圓 鄭東元 五〇錢 鄭[illegible] 二〇錢 鄭[illegible] 三〇錢 金鳳洙 五圓 一〇錢 [illegible]南鮮支[illegible] 一圓 二圓 第一東新里[illegible]會

正租共販制로 穀商들은不利

【淸安】충북괴산군농회(槐山郡農會)에서는 금년 부터 벼(租)공동판매를 실시하고잇는데 수속편다로 세농층의 불편으로보는 미곡상들이 대타격을바더 그대책에부심중이라는바 그내용을뜻건대 종전에는 미곡상들이 중간에 배파리군들노와 초이를다이며 가진방법을 써서매입하든것을 톨판공판실시를 하게되면후로는 중량의정확과 최고가격낙찰노리가 밝한밴디리 용이하게살수가업다하야 청안역전에잇는 미곡상들도 조직이된 곡물협회(穀物協會)에서는 그대책에부심중이라고한다

無風地帶咸北에는 小作爭議皆無!
農地令은無用의長物노릇
統計帳簿도白紙뿐

【淸津】농지령(農地令)실시이후 만삼개년의 경과를보게된 오늘까지 함북도내의 실적은 소작쟁의개무(小作爭議皆無!)라는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이고잇다 따라서 농지령의 법적발동은 전연업섯고 사실상 농지령은 함북에한하야 무용의 법령처럼 되고잇다

이것은 함북농촌의 특수성을 말하는것으로 즉 광범한 경지면적(耕地面積)에 비하여인구(人口)가 극히 희박한편계와 대다수가 자작농(自作農)으로 소작농(小作農)이란 전농가의 일할정도에 불과하야 농토를 만히가진 지주가잇다치고 소작인을 구할수업는형편이요 한편 불모(不毛)의농촌생활에서 점차 도시(都市)생활로 분리하는 경향까지엇서 토지에 비례한 인구의희박성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금후의 함북농촌이 언제까지 이가튼 무풍지대——반원시상태(半原始狀態)——를 지속하야갈것인가? 지금까지의현상이 바로시상태에 잇다하나 환경의변화를 부정할 한풍의재료도엇다

즉 외래이주민(外來移住民)의 격증에 따르는 인구의 조밀화는 필연적으로 농토의 분배를 촉진시킬것이며 도시집중(都市集中)의 환멸(幻滅)에서 귀농(歸農)하는자 적지안흘것과 근년의 토지경기(土地景氣)에 힘닙어 토지겸병(土地兼倂)이 격심한데다가 부재지주(不在地主)이 출현한점등은 금후 평화로운 함북농촌의 계면(收穫)을 재촉하야마지안흘것으로보인다 어가리 장래에 닥처올 새저새에 대한 예처은 극히 용이한

"健康都市大邱"目標 衛生組合을結成
五日公會堂서準備委員會開催

【大邱】삼이만대구부민의 건강을 직히기 위하야 위생진흥(衛生振興)을 강화하여 건강도시대구의 명성을 올리기 위하야 대구서(大邱署)에서는 도모하여오든터로 오는십일월오일 오후한시부터 대구공회당(公會堂)에서 각정총대 기타 관계자 사백명을 모아 그 결성준비위원회(準備委員會)를열고 동서정오로부터 설명후 지를 일반에게 발표한후 준비위원의 희망의견을 청취하리라는바 동위원은 일반의 호응을 받고잇다고한다

開原靑年會에서 亞鈴講習會開催

【開原】개원조선인청년회에서는 금번 전조선아령선수권보지자 경성중앙체육연구소사범(京城中央體育硏究所師範)전영진씨를 초빙하야 아령강습회(亞鈴講習會)를 본보지국후원하야 지난이십일부터동청년회관루상에서 개최하엿는대 매우 량호한 성적으로 종료하엿슴으로 이십삼일부터 제이차강습회를 모집중이라고 한다 일반희망자는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하며 회비와시각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會費一人 金一圓五十錢
時間 每日午後八時
期間 一個月
場所 開原朝鮮人靑年會館

坑夫一名重傷

【新義州】평북귀성군천마면(龜城郡天摩面) 삼성(三成)광업소 광부 배창원(裵昌元)은 지난이십일일 오전열시경 광산갱내에서 작업중 암석이 머리에 떠러저 뇌를 상하야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貨車江中에轉落 人夫四名死傷
朔州龍泳洞의慘變

【新義州】이십칠일오후일곱시경 평안선고리(平安線古里)삼천사송수회물자동차 평남일천자회의오십오호를 운전수 김봉희(金鳳熙)이가 조종하야 압강수전공사의 전주여덟개를 싣고 올레워자지고 가든도중 평북삭주군 삭주면룡영동 (朔州面龍泳洞)농의도로에 이르러 중량으로 말미암아 지반이무너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놀이정」미들「되는 강에떠러저 리병순은 즉사(即死)하고 공사감독중촌(中村)외세명은부상을 당하얏다한다

言爭타友人毆殺

【釜山】지난이십륙일오전열시경 경남울산군장생포(蔚山郡長生浦)매축장(埋築場)에서 그부근에사는 선원(船員)인왕정오(王正五)와 주재홍(朱再洪)량명어 사소한일로서 말다툼을한남어지 왕정오가주재홍을 때려복부를찻는데 그후주재홍은 치료중이든바 지난이십팔일밤에 사망하얏다고한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서는 왕정오를 상해치사죄로 인치하야다가엄중히취조하는동시 그사체를해부하기로하얏다고한다

南浦商工會頭 加藤氏로決定

【鎭南浦】진남포상공회의소(鎭南浦商工會議所)회두 상산(上山)씨의 사표제출이래 약이주간이나 지난 근일에와서 후임이누구에게로 결정될는지 일반의주목거리가되여오든바 후임문제는 먼저 전평의원(全評議員)의 손에서 신중협의한결과 지난이십칠일 오후 세시부터 상공회의소 루상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석상에서 가등등태랑(加藤藤太郞)씨를 후임회두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가결하엿다고한다

警務局長離平

【平壤】황해도(黃海道)순시중이든 삼교(三橋)경무국장은 진남포(鎭南浦)강서(江西)등지를 지치어 이십칠일저녁 평양에와서 일박한후 이십팔일오전에 평남도청에서 관계관과 간담한후 도경찰부 부내 세경찰서원에게 훈시를하고 각관공서에 인사로 방문한후 이날오후 비행장에서 비행기로 경성에 향하엿는데 이날아침 도경찰부당국자와 다음과 가튼 문제를 토의하엿다고한다

평양은 소화륙년 배화사건(排華事件)때에와치고 어떤이유도업서 번재인데 진남포한민은 자세히 보앗다 명년도예산은 우리들로서도 예측이곤난하다 드시거국적으로 전승(戰勝)을위하야 예산의절략가든것을생각하고 안는다

지나사변이여전한 결과를저을재 전연 예측키곤난하며 수면여 끗난뒤에 조선경찰관을 만히사변지로 전출시킬것도 아직 고려해볼여지가업다 그러나 경비의강화를위하여 경비 전신(電信)등을시키관설비는 자급적 속히실시할작정이다 운운

妓生演奏會에서 五百餘圓獻金

【新義州】신의주조선권번(新義州券番)에서는 지난이십삼사흘간 부내 신선좌(新鮮座)에서 국방헌금 대연주회를 개최하야 당일수입금 칠백륙십구원사십전을재중 잡비 이백륙십원팔십전을제한남어지 오백팔십원구십삼전을 국방헌금으로 내이엿다

工業振興座談會
關係者百餘名參集裡
工都釜山建設問題等檢討

【釜山】부산상공진흥좌담(商工振興座談會)는예정과가티 지난이십팔일오후한시반부터 부산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경남도 산업부장 상공과장 부산부윤기타관계관과 상공회의원 상공업자들 일백여명이 참집하야 출석자중 중앙시험소(中央試驗所)산촌(山村)소장을 중심으로 전력(電力)연료(燃料)공업용수(工業用水)공업금융(工業金融)공업진흥지도(工業指導)취업공(就業工)공장유치(工場誘致)등의 공업도시부산 건설상 중요한 문제를 검토한후 동다섯시경에 폐회하얏다고한다

六個年間繼續으로 咸興市街大整理
工費百五十萬圓程度

【咸興】함흥부에서는 지난소화사년부터 십이년까지 시가지정리제일기공사를 필하얏는데 급격히 발전하야가는 현세로보아서더욱 적극적으로 정리할필요를절감하게 되얏슴으로 명년부터 십칠년까지 륙개년 계속으로도로 하수도에 대하야 대개수를 할계획을 세우고잇다 이에대한 총공사비는 일백오십만원의 거액을 계상하고그중 일백이십만원은 도로개수신설하수도정리에 삼십만원을 예산하고잇다

여 열백오십만원의 재원으로국고보조가 오십오만원 도비보조가이십이만오천원 부비(府費)칠십이만오천원으로 그중부비는토지평수할(土地平數割) 삼십칠만오천오백칠십칠원 폐도메구(廢道溝)의매각 이만오천원 부기채(起債) 삼십칠만원 기타로서 충당할계획이다

本報支局後援의 裁縫講習會開催

【全州】싱가ㅣ재봉회사 전주분점에서는 본보 전주지국후원으로 양재봉계에 명성이 놉흔봉창석(龍昌錫)여사를 초빙하야재봉강습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일반 가정부인은 만히입회하기를 바란다하며 강습요항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定員 六十人
會期 十一月二日부터同六日까지
(每日午前十時부터 午後四時까지)
會費 五十錢(申込同時)
會場 全州西門外幼稚園
申込 十一月二日까지

低濕部下水道改修外 二個幹線路新設
路面도舖裝으로淸掃

【咸興】별항래년도부터 대개수할하수도는 대개거설찬선(幹線)하수도의 상류와 그지선(支線) 몃시가지중에 가장저습한곳 그리고 열번소지선을 모조리개수할터로 모두 철근콩크리트암거(暗渠)로할터인데 그연장은 삼천팔백메톨이라고한다 도로는 일등도로 원산회령(元山會寧)선중 서가지부로서

美本隊—黃金町一丁目
幅員二十二米 延長二九五米
東陽通二丁目(公會堂)—中央町三丁目(新道廳)
幅員二五米 五〇〇米延長

이두로선신설외에 어떤 시가지계획으로서 건축부지 조성하자는 지구에되는 상계간선의 로면포장을 하는것등이며 도로에는 보도 차도의 구별을 하야두는근대적 도로를완성케되리라 한다

大黑山島鞍馬島一帶 石魚大蝦의豐獲
五百漁船集結殷盛

【木浦】요사이무안군연안(務安沿岸)일대에는 『조긔』의 성어기가 닥처왓슴으로 대흑산도방면에서부터 안마도(大黑山島鞍馬島)일대에는 벌서 오백여척의어선이 집결되고잇서 하로평균일만여지상만마리의 풍어를계속하고잇스며 가격도현상시세가량의 호세요 어『조긔』잡이에 자연히바르는 대하(大蝦)도 한 하로밤에 한마리의 수확어잇는바 [illegible]

府電車또殺人

【平壤】사고만키로 이는 평양부영전차가 또사람을죽이엿다 이십칠일오후아홉시경 세평양역전을출발하여 부내에향하든 운전수류창봉(劉昌鳳)이가 조종하는 부영십사호전차가 아플동과하는편 령사십세전후되여보히는 조선남자를치어 즉사케하엿다 대동서에서는 피해자의원적지를조사하는일변 가해운전수를 취조중인데 여무궤도전차사고로 열팝부면은 아심하고 도로부근을 통행할수업다고원성어자자하며 에번사고도 철필매동아플건너는사람을치어죽인것이라한다

釜山府에서 方面委員十四名을任命

【釜山】부산부 사회계(社會係)에서는 부내의 방면사업(方面事業)의 철저화를 도모하고자부내 방면정에 지난이십구일부로 방면위원 십사명을 임명하엿는데 어것으로 현재 팔개소의방면위원이 일백이십명에 달하는데 금후 어들 방면위원과 협력하야 세민계급의 사회적시설에 적극적으로활동할터이라한다

長篇小說 濁流【20】
蔡萬植 作 / 鄭玄雄 畵

生活第一課(十一)

제호는 그러다。백화 할망매로 여러해두고 별르든 기회를 끈맛나 그야말로 평생소원을 끈칠 커다란 연극을 한바탕 꾸머게되니 용통이져 절로 흥이어려거 만족한편이다。

그러니 얼룰 묘하거생겨 제집에하나엄 그러 대세가아니다 만일 초봉이로해서 엄에 지떼적거림이 잇다든자 또 그계엄어 손아귀에 들어온것어라도 일을하는데 필요판하다면 빼아러내노키를 주저하지 아니할 경우요 그럽직한 위인이다

그러나 초봉이와 열과는 아무런 상극도 되지아니한다。그런게아니라、초봉이는 제호한테 우슴을 베처주는 꼿이다。

제호는 안해에게 늘 볶게지내거만하지 가정에대한 낙이라고는업다。그러한 그에게、어쩐 초봉이를 손 닷는데 두어두고 서시로 바라보는것은 큰 위안거리가、아닐수업다。

그는 안면잇는 친구의 자녀라는것어며、나히 갑절이나 차어저서 자식뻘밧게 아니된다는 점이며、안해의 감시며 그러고、무엇보다도 초봉이가 미혼처녀라는것때문에 그의 욕망은 행동에로 발전을못하고 견제가되어엇든것이다。일반으로 중년에 들어선 기혼남자는 그저 때를 자고나선 호색한이아니면 미혼처녀에게대해서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는한편 일종 경박한편념에거까운 조심스러이 큰 힘이되어 그들을 억눌러버리는수가 만타。제호도 역시 그러햇다。

그러나 그는 초봉이를 노치고십지는아니햇다。

여섯시가 되기를 기다려 초봉이는 가개를 나섯다。오후의 유장한 해가 서편으로 기울고 중천은 한벗스로 풀으다。넘우 맑고 풀은것이 되려 그대로두기가 아깝고 희구름조각 한두점쯤 깔어노앗스면 조흘것갓다。

아침에도 그랫고 어제그적게부터도 그랫지만 정거장통리의 포푸라숲과 그건너편의 나즌산에 처음보는것가티 연푸른 초록으로 휘하게 피어올랏다。

어데 포근포근한 잔디밧이라도 잇스면 퍼근히 좀 추저안저 놀고시퍼지는것을、그러한유유한 마음과는 딴판으로 초봉이는 종종걸음을 처서、제일보통학교아플지나 집이잇는『둔뱀이로 가고잇다。

학교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몃만 놀고잇다。초봉이는 형주가혹시 그속에 석겨잇나하고 살펴보앗스나 눈에 띄지아니햇다。

미리오로 소는 아까시아나무에서 달큰한 꼿향내가 번저내린다。초봉이는 갈리듯 고개를 처들고 주다랏케 조랑조랑 매달린 아까시아꼿송이를 올려다보면서 절로 미소를 들어낸다。

조금아까만해도 초봉이는 어떠한 마음의 여유는업섯다。그래서 지금은 양식거정가튼것은 다 어데로가고 꼿향기에 마음노코 우슬수가잇다。

제호를 따러 서울로 가기로 아주 마음에 작정을햇다。모친은 그러러고할것이고 좀 반대한다면 부친이게는데 잘 이야기를하고 또 모친과 제호가 조루록하면 역시 승낙을 할것이다。

제호가 아까 마주막 한 세섬원 주겟뎃스니까 우선하면 삼십원은 집으로 내려보낼수가 잇고 또 종차 형편을보아 겹얼 좀 서울로 이사를 해갈수도잇다。

그래서 서울、놀가고십은 서울가저서 살수가잇다。

서울은 사년급때 수학여행으로 한번 구경을 가기는해섯다

그러나 그러케 지날결에 한번 구경한것으로는 초봉이가 품고엇는 서울의 환상을 씻지못햇다。그는 서울이면、그때에 본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연연하어엿스려니 지금도 생각하고엇다。

그래서 인제 서울로 가서살면 조호리라고、무엇이 어떠케 조호리라는것은 몰으고 그저、조호리라고 만 기뻐햇다。

하거야 그러케 기뻐다가도 윤희를 생각하면 이건 일이모롱와해되나시피 낙심이되엇다 낙심이되어 그것을 어떠케 이나하고 궁리도 해보앗스나、그이가 방해를 놀면、별수업시 못가고 말것가탓다。그래 답답하고하니 재、무얼 그것도 제호가 조루록 다 이러구저러구해서 역시 따려저게 되겟지하고 일부러저를 안심시켯다。

또한가지 승재와 한집안에서 살지못하게될것、어것이 어간만 섭섭한게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두룩 마음을 돌릴수가잇다。승재는 시험을 보느라고 서울을 다닐러어니까 그때에 만날수가잇슬것이고 그러는동안에는 지금의 전화대전 편지나 서루 하면서지내고 그러느라면 승재도 종차 서울로 올라오겟거니 해서 역시 여섭이다。

어러케 범사가 다 마음먹은 대로만 되게된것을 기뻐하면서 초봉이는 머리위로 향기를 뿜는 아까시아나무를 올려다보고 방싯 웃는다。